

다산포럼

남한산성에서 있었던 일



김정남 언론인

지난 6월 22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새삼 각광을 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남한산성은 중국과 일본의 축성법 영향이 남아있어 동아시아 산성 건축술 교류의 증거일 뿐 아니라 7~19세기 유적이 골고루 발견돼 축성기술 발달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 등재 이유를 밝혔다.

남한산성에 대한 유네스코의 평가와 세계유산 등재는 분명 반갑고 기쁜 일이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은 동시에 1636년 병자호란 때 이 민족이 겪었던 수난과 고통, 치욕과 수모를 어쩔 수 없이 떠오르게 한다. 그 해 선달 열 나흘날, 조선 조정은 두 왕자 등을 우선 강화로 피난케 하고 임금은 새자과 백관을 거느리고 그 뒤를 따르려 하였으나, 이미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 들어간 곳이 남한산성이었다. 다행히 남한산성은 10년 전에(1626) 비상왕궁으로 새롭게 축조되었고, 성 안에는 1만3000명의 군사와 50일분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

정촌 특·특

과학과 영어 그리고 대학의 영어 강의



차호준 광주과학기술원 4학년·물리전공

대한민국에서 이공계 학도로 살아가면서 평생 발목을 잡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영어’다. 과거 단거리 국제단위계로 통일되었던 것처럼, 현재 과학계의 공용어는 영어로 굳어져 있다. 가령, 자연과학의 전 분야를 통틀어 영향력 있는 논문은 대부분(90% 이상) 영어로 작성되고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학회에서 사용되는 공식어 또한 영어이다. 다른 연구자와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이 필수인 과학 연구의 특성상 언어 장벽으로 인해 최신 정보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연구자로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목적으로 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의(영어강의)가 시행되고 있다. 과학기술특성화 대학(GIST, KAIST, UNIST, DGIST, POSTECH)의 영어강의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GIST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전공과목 100% 영어강의를 고수해 왔고, KAIST도 전공과목 100% 영어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의 영어강의는 몇 해 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영어강의로 인한 득보다 실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대학생활 4년 동안 모든 학기에 영어강의를 수강한 필자는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열렬한 영어강의의 반대론자였다. 영어로 강의를 전달되면 그 이해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한글로 강의할 때와 비교해 전달되는 내용의 질도 저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영어강의를 통한 영어 능력 향상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었다.

기고

공론조사 경선 문제, 선호투표제로 해결되길



양혜령 백화포럼 공동대표 양혜령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후보 선출을 위해 도입한 ‘공론조사(公論調査)’ 경선 방식은 당초 내세운 ‘개혁 공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상당한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궐선거 공천 방식으로 무작위 선거인단 모집방식은 공론조사와 같으나 지지 순위대로 후보들 모두에게 복수 기표하는 ‘선호투표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공론조사 방식은 현역 위주의 ‘인기투표’라는 오명을 얻은 100%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전에 모집한 선거인단들에게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도록 한 뒤 지지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론조사의 본래 취지였다.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에게 몇 배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당직 선거와는 달리 공직선거를 위한 당내 경선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당원과 구별하지 않고 부여하는 것은, 당원경선의 경우 선거를 앞둔 후보들이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많은 에너지를 당원 모집에 집중하게끔 유도하므로 주민과 함께 하는 시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뜻있는 기초선거 후보자들에게는 개혁공천으로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컷오프(Cut off)’와 ‘전략공천’ 외에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신인발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쓸쓸한 최종 결론이었다.

청춘특독·기고 환영합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원)생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느끼는 고민과 희망, 그리고 기성 세대에 전하고 싶은 솔직한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대학, 학과명, 사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많은 관심 바랍니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는 짓을 올리며 항복하였으니 그 치욕이 삼천도비로 지금도 남아있다. 두 왕자가 불모로 끌려갔고,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제)는 잡혀가 참형을 당하였다. 50여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조선인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돌아온 여인들은 화냥년(緇郷女)이라 불렀다. 이 나라 역사에서 내가 가장 저절했던 장면의 하나로 꼽는 일이 이 남한산성에서 있었으니 항복문서를 놓고 울면서 한 사람은 찢고 다른 사람은 다시 주워 붙이는 장면이 그것이다. “조선 국왕은 삼가 대청국(大淸國) 관운인성(寬溫仁聖) 황제폐하께 글을 올립니다. 소방(小邦)은 대국에 거역하여 스스로 병화(兵禍)를 재촉하였고 고성(孤城)에 몸을 두게 되어 위난은 조석에 닥쳤습니다. ... 지금 원하는 바는 대국의 명을 받들어 그 번국이 되고자 합니다. ...” 여러 차례 퇴고를 거듭한 국서를 이조판서 최명길(1586~1647)이 다시 고치고 있는 것을 예조판서 김상헌(1570~1652)이 들어와서 보고는 그것을 빼앗아 찢어버리면서 “대감은 항복하는 글만 쓰오? 선대부(先大夫)는 선비들 사이에 명망 있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먼저 나를 죽이고 다시 깊이 생각해주오” 하며 통곡하니 세자 역시 임금 앞에서 목놓아 울었다.

최명길은 찢은 종이를 다시 붙이며 “찢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되고(裂書者도 不可無), 다시 붙이는 사람도 없어서는 안되고(補書者도 不可無라). 찢는 것은 대감으로 마땅히 하실 만한 일이나 종사를 위해서는 다시 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최명길 역시 울고 있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시구가 김상헌에게 “대감이 척화하여 국사가 이렇게 되었으니, 대감의 이름은 후세에 남겠지만, 종사는 어떻게 할 것이요?” 하며 달려들자, 김상헌이 “나를 묶어서 적진에 보내주오. 통곡하며 밖으로 나가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익성이 “이 칼로 주화자를 목베리라” 하였다. 그러나 왕은 최명길에게 국서를 다시 초하게 하여 좌의정 홍사봉을 청나라 병영에 보내 화의를 정했다. 아마도 이날이 정월 열여드레였을 것이다. 나는 이 나라 역사에서 그때의 이 처연한 장면을 잊지 못한다. 나는 김상헌의 대의와 최명길의 경륜을 다 같이 높이 평가한다. 김상헌은 항복하는 글을 찢으면서 대의를 세웠고, 최명길은 그것을 주워 모아 화의를 주선함으로써 종사를 구하였다. 위난의 남한산성에는 대의가 살아있었고 경륜이 또한 숨쉬고 있었다. 지금 이 나라에 과연 대의가 있는가. 경륜이 있는가. 남한산성과 병자호란을 다시금 생각해 본다.

社說

민선 6기 최대의 목표는 ‘민생 살리기’로

오늘부터 민선자치 6기가 시작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시장과 지사를 비롯한 27개 기초단체 가운데 13곳의 수장이 교체됐다. 변화와 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시민운동가 출신 윤장현 시장이 끌고 가는 광주는 민주·인권도시답게 ‘주민참여’가 주된 시정 방향으로 잡혔다. 과거 일부 성과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에서 탈피한다는 게 큰 원칙이다. 대화와 합의를 통해 주민 참여도가 가장 높은 자치행정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전남 도지사 또한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인수위 활동을 통해 민선 5기까지 추진했던 각종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해 전남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민선 6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서민과 중산층이 고루 잘 사는 ‘민생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민선자치는 지역 구성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민선 6기를 위해 단체장 취임 초부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인기에 영합하는 비현실적인 시책들이다. 예를 들면 윤장현 시장의 경우 시민 반응을 과도하게 의식해 여론에만 떠밀려가서는 안 된다. 이낙연 지사는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현안에 대해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들 역시 선거구민의 눈치만 살필 게 아니라 최선의 지역 목표를 설정해 밀고 나가야 한다. 자체 비교 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한 뒤 향후 5~10년을 대비해 전례투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퇴임한 김종식 앞둔군수의 전북산업 집중이 좋은 예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단체장들은 이제 지역민이 바라는 민생자치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한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다 높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시내버스에 발목 잡힐 순 없다

광주시내버스 노사가 지난달 30일 임금협상을 타결, 1일부터 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 노사는 월 임금총액 3.65% 인상과 내년부터 제수당(상여금 등) 통상 지급 적용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가 사측이 제시한 3.62%의 인상안에 0.03%(1000원)을 더 올리자 8일 동안이나 파업을 한 것이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애를 태우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또한, 95개 시내버스 노선 중 장성, 담양, 나주, 화순 등지를 오가는 11개 노선은 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우리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을 지켜 보면서 퇴행적인 노사문화와 광주시의 원칙 없는 대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노조에 묻고 싶다. 1000원을 인상하자고 8일간이나 시민의 발목을 잡은 처사를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하겠는가. 가뜰이나 광주시 재정이 열악한 데도 준공영제를 통해 6년간 무려

1744억 원의 현세를 쏟아 부은 것은 버스업체의 적자 해소와 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있지 않았는가. 시내버스 업계의 방만 경영도 이대론 안 된다. 업체들은 지금까지 광주시가 지원한 예산만 타서 썼지 구조 조정과 원가 절감 등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았다. 불투명한 경영은 물론이고 퇴직금 유용,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도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버스업체에 대한 감사권도 없는데다, 사업주의 이익마저 보존해 주었으니 사실상 놀아난 꼴이나 다를 바 없다. 광주시는 이번 버스 파업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걸맞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 감사권을 명확히 하고, 버스 회사들이 경영개선을 통해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시내버스에 발목이 잡혀선 안 된다.

無等鼓

지난 1월 초,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트레킹을 위해 네팔 카트만두~루크라행 18인승 경비행기에 올랐다. 활주로를 뒤덮은 짙은 안개 때문에 무려 4시간을 기다린 후야야 간신히 몸을 실을 수 있었다. 가이드북에서 미리 읽은 대로 왼쪽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비행기 좌측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실제로 현행 영여강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 공부에 대한 동기 부여가 결여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개선안도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외국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본인이나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것이 언더다.

향해 걷는 중에도 볼 수 있었다. 주민들은 계곡과 계곡 사이, 또는 비탈진 자그마한 땅을 개간한 후 밭 주변에 돌담을 쌓아 감자와 채소를 기르며 적박한 환풍 속에서 살고 있었다. 최근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확정됐다. 이 제도는 보전·전승할 가치가 있는 지역 농업문화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산수유와 대나무는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도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때 경험한 것처럼 우리 주변의 ‘농업유산’은 자칫 망가지거나 분모습을 잃어버리기 쉽다.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남해 가천마을 ‘다랑어 논’, 지리산 피아골 ‘계단식 논’처럼 ‘농업유산’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 역사의 또 다른 기록인 ‘농업유산’의 발굴·지정 이후에도 체계적인 보전·관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농업유산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office address.